괴테클럽 독서 감상문

작성자	박송희	토론일	2022.05.27
도서명	모래사나이	저자	E.T.A. 호프만
별점	4.36/5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	등장인물의 편지와 서술자 시점의 서술이 번갈아 나오는 구조가 인상적이었으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다.		
한줄평	분열된 자아와 광기, 환상 혹은 현실 사이의 혼란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휘-휘-휘! -불타는 원-불타는 원아! 돌아라, 불타는 원아-즐겁게-즐겁게!-나무 인형 휘예쁜 나무 인형아, 돌아라.-"

"그는 늘 말하길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면서 어두운 힘들이 벌이는 잔혹한 놀이에 봉사할 뿐이며 아무리 반항해도 헛일이라고, 정해진 운명에 고분고분하게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인간이 예술과 학문에서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따라 무언가를 창조한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창조를 하자면 영감이 꼭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내부에서 생기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외부에 있는 어떤 더 높은 원리의 작용이라고 했다."

"존경해 마지않는 신사 숙녀 여러분!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게 알레고리입니다. - 연속되는 메타포예요! -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 사피엔티 사트!" …(중략)… 자동인형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영혼에 깊숙이 뿌리를 박았고 실제로 인간의 형상에 대한 꺼림칙한 불신이 암암리에 퍼졌다. 이제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애인이 나무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자에게 박자에 어긋나게 노래하고 춤추라는 등, 낭독 중 수를 놓고 뜨개질에 어긋나게 노래하고 춤추라는 등, 낭독 중 수를 놓고 뜨개질을 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놀라는 등 이런저런 일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그냥 듣고 있지만 말고 가끔은 말도 하라고, 정말로 사고와 감정이 바탕이 된 말을 하라고 요구했다.

감상

작품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눈'의 역할이 흥미로웠다. 눈, 즉 시각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가장 증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작품 속에서

눈은 나타나엘에게 눈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의 트리거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엘은 정신적 혼란과 불안을 겪는다. 나타나엘이 성장한 후 등장한 청우계 장수 코폴라가 내놓은 안경들은 그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나타나엘이 구입한 망원경은 그의 눈을 흐려 자동인형인 올림피아를 영혼과 감정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의 연인이었던 클라라를 냉철하고 영혼 없는 생명 없는 나무 인형으로 보게 만든다.

원래 사물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망원경이 오히려 시야를 흐리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 눈에 관한 트라우마를 가진 나타나엘을 표현하는 데에 아주 탁월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로 인해 나타나엘의 시점의 서술에서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환상인가에 대한 수수께끼는 단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독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다.